

『당악문헌(棠岳文獻)』 해제

김대현*

〈차 례〉

1. 머리말
2. 내용 해제
 - ◆ 자료 영인(부분)

1. 머리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고문헌자료가 남아있는데, 아직 그 전모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현재 호남 지역에만 하여도 각 대학교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소장처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약 20 여만 책 내외의 고문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많은 책들이 내용상 중복되는 경우이지만, 약 2만 여 책 내외는 호남 지역과 관련되어 저작된 문헌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중 고시가 작품의 원전들은 주로 개인 한문문집을 비롯한 개별적인 작품집이나 여러 종류의 총집(總集)들에 실려 전하여 오고 있다. 현재 호남 지역과 관련된 한문문집(漢文文集)의 숫자도 약 3천여 종에 이르고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가사 작품 축(軸)들도 매우 중요한 고시의 원자료군(原資料群)이 될 것이다. 이들 고전 문학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문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는 일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루어나가야 될 일이다.

이러한 자료 연구의 한 가지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호남한문문학연구실에

* 전남대학교

서는 호남 지역의 한문 문집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절반 정도 진행된 이 일은 호남지역 문인들과 관련된 약 3천여 종의 한문 문집에 대한 간명해제, 그리고 목차 등을 정리하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최근에 연구실에서는 ‘문중문헌(門中文獻)’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각 문중들이 이루어낸 저작 문헌들을 조사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흔히 ‘문중문고(門中文庫)’라 이름하여 각 문중들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들을 조사 정리하는 일들이 서지학(書誌學)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 작업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물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소장하고 있는 문헌만이 아니라, 각각의 문중 구성원에 의하여 스스로 창작된 문헌들에 대한 조사는 문중을 이해하고, 나아가 지역을 이해하는 한국학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호남 지역의 주요 문중 약 20여 곳 가량의 문중문헌을 조사, 정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는 비교적 많은 문헌이 남아있는 해남의 녹우당(綠雨堂), 즉 해남윤씨(海南尹氏) 문중의 문헌들에 대한 조사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 부분은 개인 문집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 문집이 아닌 총집의 형태로 된 여러 종류의 책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그 가운데 여기에 소개하고 자료를 해제하는 책 『당악문헌(棠岳文獻)』은 해남윤씨 문중의 많은 문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싣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2. 내용 해제

『당악문헌(棠岳文獻)』은 해남윤씨 문중 가운데서도 주로 현재의 해남 연동(蓮洞)을 거점으로 한 문인들과 관련된 기록을 집성한 것이다. 이들은 해남윤씨 가운데서도 주로 굴정공파(橋亭公派)이다. 여기서 당악(棠岳)은 해남(海南)을 뜻하는 옛 이름이다. 이 책은 18권 6책으로 되어 있는 필사

본으로 전체 분량은 약 1000여 면에 이른다. 또한 권수제(卷首題)는 ‘해남 윤씨문헌(海南尹氏文獻)’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책보다 앞서 편찬되었던 『해남윤씨문헌』을 이어 받아 편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악문헌(棠岳文獻)』의 권4부터 권14까지는 고산 윤선도에 관련된 기록이어서, 상당수의 분량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초은 윤�효정 이하 10대에 걸친 문인들의 관련 기록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 내용은 윤�효정(尹孝貞)을 필두로 윤구(尹衢), 윤행(尹衡), 윤행(尹行), 윤복(尹復), 윤광계(尹光啓), 윤흥중(尹弘中), 윤의중(尹毅中), 윤유기(尹唯幾), 윤유심(尹唯深), 윤선도(尹善道), 윤인미(尹仁美), 윤의미(尹義美), 윤이석(尹爾錫), 윤이후(尹爾厚), 윤두서(尹斗緒), 윤흥서(尹興緒), 윤덕희(尹德熙), 윤용(尹榕)까지 19명에 관한 관련 작품들이 들어있다.

이 책의 특징은 무엇보다 10대에 걸친 인물의 관련 작품들이 순서대로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문중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찬의식에 있어서도 고산 윤선도의 경우,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여러 인물의 기록을 상당수 실어 놓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는 본인의 작품들을 실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각 해당인물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관련 자료를 뽑아서 엮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이다. 이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는 잘 알 수 없지만, 집안에 전해오는 자료들을 다시 한 번 필사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 보인다. 해남윤씨 문중에 전해오고 있는 또 다른 필사본 『해남윤씨문헌(海南尹氏文獻)』이라는 필사본은 18세기 중엽 무렵 이후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책을 많이 참조하여 좀더 후대에 이르기까지 확대 증보한 저작이 바로 『당악문헌(棠岳文獻)』이라고 보인다. 편찬 시기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책에 실린 글로 미루어서 19세기 중엽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책은 문중에 필사본 원본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단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복사본이 이미지 파일로 작업이 되어 소장되어 있다.

이 『당악문헌(棠岳文獻)』의 편찬에 참고한 자료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

다. 권15의 끝에 실려 있는데, 약 60종 정도의 문헌 목록이 있다.¹⁾ 이는 이 책의 저본이 되었던 『해남윤씨문헌(海南尹氏文獻)』을 편찬할 당시 참고 하였던 서적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 보더라도 오늘날 그 존재를 모르는 『영천집(靈川集)』과 같은 문집도 들어 있으며, 『趙生帖』과 같은 관련 희귀 자료들도 상당수가 들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수의 후대 문헌을 덧붙여서, 『당악문헌(棠岳文獻)』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 순서대로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악문헌』의 내용은 먼저 윤희정의 조부가 되는 윤사보(尹思甫)의 묘갈(墓碣)이 실려 있는데, 후대의 윤이후(尹爾厚)가 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의 인물 항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음부터는 각각의 인물을 설정하여 관련 기록을 집성하고 있다. 『당악문헌』에 실려 있는 각각의 해남윤씨 인물들의 행적과 함께 그 해당되는 문헌의 대강을 들어 본다.

■ 漁樵隱公

윤희정(尹孝貞: 1476~1543)의 자는 희삼(希參)이고, 호는 어초은(漁樵隱)이다. 성균생원이고 가선호참(嘉善戶參)에 증직되었다. 그는 일찍이 금남(錦南) 최부(崔溥)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학문을 좋아하고 선행을 쌓았다고 한다. 해남윤씨의 가업은 그에게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윤희정의 작품으로 <友愛堂詩>가 남아 있다.

우애당(友愛堂)은 강진의 파산(坡山)에 있는 옛집으로, 윤희정은 형제가 일곱 명인데, 그가 가장 막내이며, 서로 우애롭게 즐겨서 이 당호를 지었다고 한다. 그는 농사에 열심이어서 자못 풍요로웠으며, 기근이 연속된 해

1) 『家承』 『家集』 『日記』 『己卯錄』 『己卯錄補』 『己丑錄』 『棠嶽遺事』 『慕齋集』 『十清燕行錄』 『霽峰集』 『重峰集』 『石潭日記』 『栗谷集』 『宣廟寶鑑』 『頤庵集』 『靈川集』 『靜菴經筵錄』 『古玉集』 『湖堂錄』 『錦南集』 『眉巖集』 『眉巖日記』 『聯芳集』 『杏堂遺藁』 『橘屋集』 『玉峰集』 『宗系辨証錄』 『家藏北行錄』 『滄州燕行錄』 『朝野記聞』 『愚得錄』 『撫松小記』 『族譜』 『書札錄』 『思齋拙言』 『芝峰類說』 『三江雜錄』 『攷事撮要』 『龍洲集』 『眉叟記言』 『炭翁集』 『尤菴集』 『尤菴年譜』 『白軒集』 『西溪集』 『瑞石集』 『疏劄錄』 『牛蛇雜錄』 『野史時政錄』 『夢嚙集』 『迂齋集』 『明谷集』 『荷潭錄』 『明齋集』 『靜觀集』 『光海日記』 『趙生帖』 『湖南倡義錄』 『玄坡集』 『銘髓錄』

에는 백성들이 환곡을 갚지 못하여 감옥을 채워서 새해가 되어도 나올 수 없었는데,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집안의 곡식을 실어내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미담으로 전하여서 지금까지도 ‘삼개옥문지가(三開獄門之家)’라고 부른다고 한다. 후대에 윤선도는 윤효정이 가업을 수립한 것이 마땅히 시조가 될 만하다고 하여 백련 묘 아래에 별도로 묘당을 건립하고 중동(仲冬)에 한번 제사하고, 삭망으로 참배하였다.

■ 橋亭公

윤구(尹衢: 1495~1549)의 자는 형중(亨仲), 호는 굴정(橋亭)이며, 윤효정의 첫째 아들이다. 그는 1513년(중종 8)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6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다음해 주서에 이어 홍문관의 수찬·지제교(知製敎)·경연검토포관(經筵檢討官)·춘추관기서관 등을 역임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 때 삭직되었으며, 주서로 있을 때 문제가 생겨서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1538년에 복직되었으며, 남해향사(南海鄉祠)에 봉안되었다. 문장에 능하여서 호남삼걸(湖南三傑)로 이름났으며, 저서로 『굴정유고』가 있다.

윤구에 대한 기록은 『稗官小錄』, <思齋撫言己卯黨籍>, 靜菴先生の <筵中記事>, 金命時的 <撫松小說>, <新齋傳>, <懶齋傳>, 金世弼의 <燕行錄>, <湖堂錄> 등에서 발췌한 글들이 많다.

이밖에도 『굴정유고』에 실리지 않은 <次韻學圃>(『學圃集』) 시가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新齋集』의 <寄尹橋亭>, 『思齋集』의 <次韻酬尹亨仲>, 『十淸燕行錄』의 <黃州客館夜飲聊句>·<統軍亭夜飲聊句>·<劍水驛次韻尹亨仲話別崔掌令山斗詩>·<與尹亨仲次韻主官設筵餞行詩>·<連日坐車錄呈亨仲耆伯>·<過孤竹古城次韻亨仲詩>·<漁陽驛次韻亨仲詩>·<玉河館次韻亨仲夜吟詩, 二首>·<文丞相廟次韻亨仲詩>, 『湖陰集』의 <藏春堂夜話贈尹亨仲>, 『靈川集』의 <送尹亨仲赴全羅幕>, <十七夜遇橋亭, 飲酒有感, 用貞耀先生韻書示>·<是夜橋亭出示崔景仰所贈一絕次韻>·<戲次橋亭香奩詩韻以

亂夫遺意，噫此豈善爲諛者耶》·〈書懷奉寄橋亭〉·〈仲春與亭仲子潤會奉訥齊先生，遊寶林寺西溪〉·〈頃承訥齊先生和韻不勝欽歎。仍綴荒句，送尹亨仲之行，奉呈先生案下用希斤正〉·〈橋亭惠豆詩以謝之〉，閔與顏의 〈白蓮洞憶橋亭先生詩〉，金麟厚의 〈上尹員外橋亭詩〉，奇遵의 〈送亨仲赴京〉 등 모두 23제의 시가 실려 있다. 위 시들을 통해서 윤구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海濱公

윤항(尹衡: 1505~1591)의 자는 탄지(坦之)이고, 호는 해빈(海濱)이며, 윤효정의 둘째아들로 성균생원(成均生員)이다.

윤항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다만 『蘇齋集』에서 발췌한 〈戲示尹坦之〉, 〈寄題尹上舍衡溪亭〉, 〈次韻金厚之寄題尹坦之亭子詩〉, 〈大菴寺道衍師軸中次韻尹坦之詩〉 등 시 몇 수만이 실려 있을 뿐이다.

■ 拙齋公

윤행(尹行: 1508~1592)의 자는 대용(大用)이고, 호는 졸재(拙齋)이며, 윤효정의 셋째아들이다. 1531년에 문과에 합격한 후 능성(綾城) 현령을 거쳐 동래(東來)·제주(濟州)·나주(羅州)·광주(光州)목사(牧使)등 8주(州)의 목사(牧使)를 역임한 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이 책에는 윤행에 대한 기록으로 다만 동생 윤복(尹復)이 죽은 뒤에 지은 제문만이 실려 있는데, 그것도 전문이 실려 있지 않고 앞부분만이 실려 있다.

■ 杏堂公

윤복(尹復: 1512~1577)의 자는 원례(元禮)이고, 호는 행당(杏堂)이며, 윤효정의 넷째아들이다. 1534년(중종 29) 생원이 되고, 1538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1547년(명종 2) 부안현감을 지냈으며, 그 뒤 전라도사를

거쳐 1552년 낙안군수가 되었다. 이어 한산군수·광주목사(光州牧使)·선공감부정(繕工監副正) 등을 역임하고, 1565년 안동대도호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예안에 거주하던 이황(李滉)과 교유하였다. 1573년(선조 6) 승정원좌·우부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다. 그의 유고로는 1930년에 강진의 橋林精舍에서 尹定夏가 발행한 『행당선생유고』가 있다.

이 책에서 윤복에 대한 기록은 <通政大夫守忠清道觀察使尹公神道碑>가 있는데, 이것은 권유(權愈)가 찬(撰)하고, 오시복(吳始復)이 서(書)했으며, 권규(權圭)가 진(篆)한 것이다. 부록으로 『退溪集』에 실려 있는 <答安東府官尹復>, <與尹安東復>, <答朴上舍光前尹秀才欽中> 등 3통의 편지와 유희춘이 지은 <感尹元禮> 시 1수, 그리고 金命時的 『撫松小說』에서 발췌한 글이 있다. 그런데 이 글들은 모두 『행당선생유고』 권4에 실어 놓았다.

■ 橋屋公

윤광계(尹光啓: 1559~1619)의 자는 경열(景說)이고, 호는 굴옥(橋屋)으로, 목사 윤행(尹行)의 손자이며, 윤화중(尹和中)의 아들이다. 조헌(趙憲)의 문인으로 1585년(선조 18)에 생원이 되었고, 158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01년 주서·세자시강원설서를 거쳐, 1603년 호조정랑으로서 지제교 겸 춘추관기주관이 되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역대실록의 재간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예조정랑을 거쳐 1606년 평안도도사가 되고 다음해 공조좌랑이 되었다. 유집으로 『굴옥집』이 있는데 1829년에 간행한 것이다.

윤광계에 대한 기록은 약간밖에 실려 있지 않은데, 윤광계가 누군가에게 보낸 <與人書>라는 편지와 梁大璞이 지은 <輓詞>, 그리고 윤선도가 지은 <淑人輓詞>(橋屋公室內)가 있을 뿐이다.

■ 正郎公

윤홍중(尹弘中: ?~1572)의 자는 중임(重任)이며, 윤구(尹衢)의 큰아들이다. 1540년(중종 35)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46년(명종 1) 별시문과

(別試文科)에 급제한 후 예조정랑(禮曹正郎)에 그쳤으며, 뒤에 예조판서에 증직되었다. 1572년에 죽으니, 향년 55세로, 처음에 묘는 백련동에 썼으나 손자 윤선도에 의해 전거리(田巨里)로 옮겨졌다. 이후 증손인 윤인미에 의해 또 해남의 남쪽 30리에 있는 공소동(孔巢洞)으로 옮겨졌다. 부인은 여산송씨(礪山宋氏) 홍(弘)의 딸이다. 윤홍중의 문집은 남아있지 않다.

윤홍중에 대한 기록들은 단편적으로 실려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윤홍중의 행적을 알 수 있다. 附錄에서는 『眉巖日記』에서 발췌한 글이 실려 있는데, 즉 주강을 끝낸 후에 유희춘이 임금에게 아뢴 내용으로, 윤홍중의 아들인 사회의 일이 윤홍중과 그 아우 윤의중에게까지 치욕이 미치었다고 한다. 위 사실은 왕조실록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사건의 여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駱川公

윤의중(尹毅中: 1524~1590)의 자는 치원(致遠)이고, 호는 낙촌(駱村)·낙천(駱川)·이견당(理遣堂)이다. 또 그의 집을 뇌수헌(牢睡軒)이라고 하였고, 또 마포의 별업에 살고 있어서 마포병부(麻浦病夫)라고 부르기도 했다. 윤구(尹衢)의 둘째아들이며, 선도(善道)의 할아버지이다. 1543년에 진사가 되었고, 1548년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좌참찬(左參贊)에 이르렀다. 그는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학행을 숭상하여 선조대에 명경(名卿)이 되었다. 그의 저술에는 <東湖封策> 약간편이 있는데 호당시절에 지은 것이다. 향년 67세였는데, 처음의 장지는 양주(楊州)의 천천(泉川)이고, 손자 선도가 광주(廣州)의 경안(慶安)으로 이장했다.

윤의중의 문집은 현재 전하지 않고, 다만 그에 대한 기록들이 이 책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는 노수신(盧守愼)이나 노진(盧禎)과 교우관계가 있었고, 호당에 들어가서는 노수신과 함께 뽑혔는데, 신광한(申光漢)이 뽑은 것이다. 1581년 형조판서에 올랐는데, 재산을 많이 모아 호남에서 제일가는 갑부라는 탄핵을 받았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옥사가 일어나자 동인의 지도자로서 정여립과 친하고, 또 이발(李潑)의

외숙이라고 하여 전라도 유생 정암수(丁巖壽)가 축재를 비난하는 탄핵상소를 올려, 이에 연좌되어 벼슬에서 삭출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 복관되었다. 여기에서는 『野史稗畧』에 실려 있던 호남의 진사 정암수 등 50여인이 상소한 대략을 실어 놓았다.

윤의중의 작품으로는 몇 편이 남아 있을 뿐인데, <君子樓記>·<殷山縣題詠>·<廬相國十青亭>·<應製>·<寄鄭古玉>·<丙戌疏> 등이다.

윤의중 항목의 부록에서는 『栗谷集』 <經筵日記>나 『重峰集』 등 여러 글에서 윤의중과 관계된 글을 뽑았는데, 대개가 윤의중의 부정적인 면을 말한 내용들이다. 윤의중은 옥봉 백광훈(白光勳)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玉峯集』에서 발췌한 윤의중에게 준 시 5수, 즉 <呈尹學士>, <寄呈理遺堂>, <奉別駱川相公>, <謝駱川相公寄日曆>, <奉別駱川相公還朝> 등이 이 책에 실려 있다.

이밖에도 정작(鄭碯)이 차운한 <次韻駱川詩> 1수, 이암(頤菴) 송인(宋寅: 1517~1584)이 지은 <送尹駱川赴京> 3수,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1526~1586)이 지은 <送尹監司致遠赴關西任> 1수, 양응정(梁應鼎)이 지은 <送尹學士宣勞濟州> 1수가 실려 있으며, 이어서 선조1606년 10월에 전라도 별좌(別座) 오익창(吳益昌) 등이 올린 상소문이 실려 있는데, 대략의 내용은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원통하게 삭탈관직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다.

■ 副正公

윤유심(尹唯深: 1551~1612)의 자는 통보(通甫)이며, 윤의중의 큰아들이다. 1576년에 동생과 나란히 생원시에 합격했다. 관직은 장단부사(長湍府使)와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냈다. 임숙영(任叔英)이 만사에서 ‘유덕불하년(有德不遐年)’이란 말을 했다. 아버지인 윤의중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관직이 회복되지 못하자 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를 올려 결국 복관되었다. 향년 62세로 죽었으며, 묘는 여주(驪州) 단수리(丹樹里)에 있다. 부인은 순흥안씨(順興安氏) 승의랑 계

선(繼善)의 딸이다.

그의 작품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부록으로 백광훈이 준 시 <贈尹通甫別>·<代通甫席上有贈>과 이수광(李粹光), 임숙영(任叔英), 정광적(鄭光績), 신광업(辛光業), 이형욱(李馨郁), 이충(李冲), 윤광계(尹光啓), 이경윤(李慶胤), 윤유기(尹唯幾) 등이 지은 만시가 실려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윤유기의 만시는 윤유심 부인에 대한 만시이다.

■ 滄洲公

윤유기(尹唯幾: 1554~1619)의 자는 성보(成甫)이고, 호는 창주(滄洲) 또는 만오(晩悟)이다. 생부는 윤의중이나 큰아버지인 윤흥중의 아들로 입계했다. 1576년에 형과 나란히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1580년에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했다. 관직은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다. 1616년에 아들인 윤선도가 이이첨을 논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해서 폐고(廢錮)되어 전리로 돌아왔다. 향년 66세로 죽었는데, 이때는 윤선도가 적소에 있어서 그의 서자인 선양(善養)이 양주에 묻었고, 그뒤 1631년에 윤선도가 해남의 황원면(黃原面) 모계(茅溪)에 반장했다. 부인은 능성구씨(綾城具氏) 현령 운한(雲翰)의 딸이다.

윤유기에 대한 기록으로는 먼저 관직연보가 나온다. 1594년 11월 13일에 행병조정랑(行兵曹正郎)을 받은 것부터 시작하여 1616년 7월 11일에 절충장군 행호분위사과(折衝將軍行虎賁尉司果)를 받은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윤유기의 관직이 무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파편적으로 실어놓은 기록이지만, 윤유기는 젊어서 문장으로 이호민(李好閔)과 나란히 이름이 났으며, 노진(盧禎)이나 백광훈(白光勳)과 가장 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기축옥사 뒤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고, 광해군 때에는 이이첨의 배척을 받았으며, 병진년(丙辰年)에는 파출을 당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4년 만에 죽었고, 환직첩을 받은 것은 기미년(己未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유기의 작품으로 먼저 <籲寃疏>가 실려 있는데, 이는 선조 庚戌년에

윤유심(尹唯深)과 윤유기가 올린 상소로 죽은 아버지 윤의중의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다. 윤유기 개인이 남긴 글은 그리 많지 않다. <失題>, <盧玉溪輓>, <送慶參判暹使日本> 등 시 3수와 <芳草賦> 1수, 그리고 <祭盧玉溪文> 1편이 있을 뿐이다.

윤유기 항목의 부록에는 백광훈이 쓴 시 <別尹成甫> 1수와 심희수(沈喜壽), 신식(申湜), 유희량(柳希亮), 유○(柳○), 이호민(李好閔), 김신국(金薰國), 조탁(曹倬), 이상의(李尙毅), 신득연(申得淵), 조국필(趙國弼), 윤공(尹鞏), 이광정(李光庭), 이경진(李慶全), 이정협(李廷謙), 정광성(鄭廣成), 정광경(鄭廣敬), 유효립(柳孝立), 유충정(柳忠立), 송석조(宋碩祚) 등 19명이 지은 만시가 실려 있다.

■ 忠憲公

당악문헌 권4부터 권14까지는 윤선도에 대한 기록이다.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자는 약이(約而)이고, 호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며,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을 지낸 윤유심(尹唯深)의 아들이며,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윤유기(尹唯幾)의 양자이다. 그는 서울의 동부 연화방(蓮花坊) 구제(舊第)에서 태어났으나 8세 때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해남으로 내려가 살았다.

1616년(광해군 8)에 이이첨(李爾瞻)을 벨 것을 청하는 상소인 병진소(丙辰疏)를 올려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다. 1년 뒤 경상남도 기장(機張)으로 유배지를 옮겼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이이첨 일파가 처형된 뒤 풀려나 의금부도사로 제수되었다. 1628년에 별시문과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의 사부(師傅)가 되었으며, 사부는 관직을 겸할 수 없음에도 특명으로 공조좌랑·형조정랑·한성부서윤 등을 5년간이나 역임하였다. 1633년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예조정랑·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그러나 1634년 강석기(姜碩期)의 모함으로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 좌천된 뒤, 이듬해 파직되었다.

그 뒤 해남에서 지내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배를 이끌고 강화도로

가는 도중 왕이 항복하고 적과 화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를 욕되게 생각하고 제주도로 가던 중 보길도(甫吉島)의 수려한 경치에 이끌려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난이 평정된 뒤 서울에 돌아와서도 왕에게 문안드리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1638년 다시 경상북도 영덕으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효종3년(1652)에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동부승지(同副承旨)·예조참의(禮曹參議)에 제수되었고, 1658년에 국시소(國是疏)를 올렸다.

1660년에는 논례소(論禮疏)를 올려 삼수에 유배되었으며, 1665년 3월에 광양으로 이배되었다가 1666년 7월에 특명으로 방환되었다. 1667년 9월에 부용동에서 들어가 살다가 그곳 낙서재에서 향년 85세로 죽었다. 장지는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이다. 그의 부인은 남원윤씨(南原尹氏) 판서돈(墩)의 딸이다.

1672년에 복관되었고, 숙종1년(1675)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으며, 1678년에 시호가 내려졌고, 1680년에 다시 관작과 시호가 거둬졌다. 1689년에 다시 시호가 회복되었고, 1690년에는 유생들의 상소에 의해 서원을 건립하라는 명이 있었다.

『당악문헌』에 실려 있는 윤선도에 관한 글은 대부분이 조정에서 논의된 상소문들이다.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은 1616년에 진사로서 이이침(李爾瞻)등의 주벌을 청한 <丙辰疏>, 1635년에 성산현감(星山縣監)으로서 양전(量田)의 문제점을 논한 <乙亥疏>, 1644년에 의약(議藥)의 소명(召命)을 받고 사양하면서 올린 <甲申疏>, 1649년에 새로 즉위한 효종에게 진언한 <己丑疏>, 1652년의 <論元斗杓疏>, 1658년의 정개청(鄭介淸)을 변호하고 그의 문집 간행을 청한 <國是疏>, 1660년 자의대비복제(慈懿大妃服制)의 삼년설(三年說)을 주장한 <論禮疏>와 <禮說> 등으로, 대부분 조정에서 수많은 상소문들이 생겨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발췌된 글들도 대부분 상소문이나 계사들이다.

권4에서는 <丙辰疏>에 대한 반응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유배에서 풀려나고 관직을 제수 받았으며, 왕자들의

사부가 되었다. 1658년에는 정개청이 억울하게 죽어간 상황을 제대로 밝혀 원상으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국시(國是)에 어긋난다 하여 수천자에 이르는 장문의 ‘국시소(國是疏)’를 올려 반대파들의 혹독한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때 권시(權諤)는 판서 정세규(鄭世規)에게 보낸 편지에서 옹호하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왕에게 들이지도 않은 채 머물러 두다가 왕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하는 계를 올린 내용들이 실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김좌명(金佐命), 윤비경(尹飛卿), 남구만(南九萬), 김만기(金萬基) 등이 있다.

권5에서는 1660년(현종1년) 4월 17일 논례소(論禮疏)를 올리자, 이에 대한 극렬한 논의를 발췌한 글이다. 그것의 대략은 효종에 대하여 대왕대비(大王妃)의 복제를 바로잡아 국시를 바로하고 종사를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상소문은 정원에서 왕에게 올리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다. 윤선도의 복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세었는데, 서인들이었으며, 윤선도를 옹호했던 권시(權諤)의 상소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대표적으로 유계(兪槩), 송시열(宋時烈), 김만기(金萬基), 심세정(沈世鼎), 윤비경(尹飛卿), 이무(李瑩), 이경억(李慶億), 박세모(朴世模) 등이 올린 계사의 대략이 실려 있다.

권6에서는 1661년 4월에 심리할 때 삼수에 유배를 가있는 윤선도에 대해 논의한 계사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이때 송준길이 윤선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아뢰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조정에서의 많은 논의가 실려 있으며, 1667년 8월에 해남으로 돌아오다는 내용으로 끝이 난다. 권6의 끝에는 1671년에 허목(許穆)이 신도비문을 짓고, 홍우원이 시장을 지었으며, 채희암(蔡希庵)이 서원상량문을 지었음을 기록하였다.

권7에는 1673년 영릉천개시(寧陵遷改時)의 사건부터 나오는데, 이미 윤선도의 사후에 불거진 일이지만 이 일은 앞의 사건들과 연결된다. 1674년 2월 인선대비(仁宣大妃)가 승하하자 다시 복제문제가 거론된다. 이번에는 남인측의 논의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이어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효종이 승하하면서 논의된 종통문제가 다시 거론된다. 1678년

8월에는 윤선도의 손자인 윤이석(尹爾錫)이 효종의 어찰(御札) 5폭을 올리면서 윤선도와 그의 아버지 윤인미(尹仁美)가 억울함을 당한 일을 상소한다. 그래서 윤선도에게는 시호가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다시 윤선도의 관작과 시호를 삭탈하라는 이사명(李師命)의 상소문도 붙어 있다. 1689년 2월 23일의 기록에는 우의정 김덕원(金德遠)의 계가 실려 있는데, 관작과 시호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이다.

권8은 속록으로, 허목의 상소문과 송시열의 헌의, 그리고 윤휴(尹鑄)와 이유봉(李惟奉)의 글, 김수홍(金壽弘)의 변문, 하홍도(河弘度)의 논례문 등이 실려 있는데, 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권9에는 유세철(柳世哲)의 상소, 호서유(湖西儒)들의 상소, 홍득우(洪得禹)와 안음(安峯)의 상소, 조사기(趙嗣基)의 상소, 윤헌경(尹憲卿)의 상소, 나두하(羅斗夏) 등의 상소가 실려 있다. 복제설에 관한 옹호설과 반대설이고, 나두하의 소는 정개칭의 사우를 복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이다.

권10은 부록으로, <五先生建院通文>, <五先生祠宇請建疏>, <白蓮書院上樑文>, <神道碑陰記> 등과 남구만(南九萬)이 개찬(改撰)한 <顯宗大王行狀>, 윤두서의 <觀庚子禮訟記瞥見>이 실려 있다.

권11 역시 부록이다. <困齋先生年報>, <愚得錄序>, <愚得錄跋>, <閔判書應亨神道碑>, <白軒李公行狀>, <白軒神道碑>, <睦參議兼善墓誌>, <墓碣>, <南礪陸監司神道碑> 등 관련 사건의 부분만을 간략하게 발췌한 것이다. 이밖에도 『탄옹집(炭翁集)』이나 『동춘당집(同春堂集)』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였다.

권12는 충헌공 관련 부록이다. <與宋時烈>은 이단상(李端相)의 『정관제집(靜觀齋集)』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윤선도를 비난하는 글이다. 이어 <李端相年譜>에서 윤선도 관련 부분만 뽑아 실었다.

<朴世城碑>, <金南重碑>, <朴世模碑>, <金始振碑>, <金萬基神道碑>, <金萬基家狀>, <吏曹參判尹墀行狀>, <大司諫李柙墓誌>, <領議政洪命夏行狀>, <杞平君俞伯曾神道碑>, <僉知李憲墓碣>, <左議政鄭知和墓誌>, <禮曹參判金始振墓誌>, <上炭翁書>, <又> 등은 모두 효종의 승하로 인해 발생

했던 복제(服制) 관련 윤선도와 그의 상소 내용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권13은 충헌공 관련 부록으로, 조경(趙綱)의 <拙疏慳于群小問答>이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은 윤선도와 평소 교분이 있었던 사실에 입각하여 윤선도를 변호하는 글이다. 이어 실린 <附宋時烈年譜>는 송시열의 연보는 상세하게 부록한 대목이다. <野史己亥服制>과 <朝野記聞>은 서문중(徐文重)이 윤선도의 복제 상소에 대해 비난한 내용이며, 나양좌(羅良佐)의 『명촌잡록(明村雜錄)』과 김시양(金時讓)의 『하담일기(荷潭日錄)』에 수록되어 있는 윤선도의 평을 실었다. 이어 조경(趙綱), 허목(許穆), 윤돈(尹墩), 정세규(鄭世規), 이원진(李元鎭), 심광수(沈光洙), 이해창(李海昌), 최유연(崔有淵)이 윤선도에게 보낸 편지가 차례로 실려 있다. <孝宗大王潛邸時御札>은 효종대왕이 즉위하기 전에 윤선도에게 보낸 어찰이다. 이어 윤선도의 작품과 그와 창화(唱和)했던 인물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別尹先生歸海南困舍>는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윤선도가 해남으로 떠날 때에 헤어지며 지은 작품이며, <次韻敬呈麟坪大君案下>는 윤선도가 인평대군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다. 이밖에 정량필(鄭良弼), 심광수(沈光洙), 이해창(李海昌), 최유연(崔有淵), 이동규(李同揆), 채유후(蔡裕後), 이무(李袤), 김시양(金時讓) 등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권14는 충헌공 관련 부록으로 <遺事>, <甫吉島識>, 「趙生帖」으로 구성되어 있다. <甫吉島識>는 1784년 가을 윤선도의 5세손인 윤위(尹偉)가 보길도에 대한 상세한 지형과 특징 및 보길도에서의 윤선도의 행적을 기록해 둔 것이다. 말미에는 6세 외손(外孫)인 정약용(丁若鏞)의 <芙蓉懷古>와 목만중(睦萬中)의 <過孤山尹先生舊墟>, 목이석(睦台錫)의 <謁孤山祠>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附記趙生帖>은 윤선도 1617년 경원(慶源)으로 유배 가는 도중 그를 위로하며 맞아주었던 홍원(洪原) 기녀 조생(趙生)에게 사례로 한 수의 작품을 지어준 바 있다. 이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의 작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차운한 작품을 엮어둔 것이 바로 『조

생첩(趙生帖)』이다. 이 시첩에는 1617년부터 1694년까지의 무려 40여 명 작가의 81수의 시작품이 실려 있다. 기녀와 관련되어 이처럼 시문을 집성한 작품집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진다. 「조생첩」에 작품을 남긴 작가로는 金時讓, 金地粹, 兪命弼, 尹善道, 李敬輿, 李堂揆, 李萬元, 李保晚, 李尙眞, 李聖求, 李沃, 李恒福, 李玄祚, 趙綱, 崔暉, 黃道宏, 養愚, 柏峯, 滄海, 青海病客, 廣陸後人, 漢陽默拙, 竹軒, 鶴山, 夷州遇客, 烏川遇客, 銀臺歸客, 遇客悟軒, 雙竹, 過客, 遠遊人 등이 있다.

■ 牢癡軒公

윤인미(尹仁美, 1607~1674)의 자는 자수(子壽)이고, 호는 뇌치현으로, 윤선도의 장자(長子)다. 1630년 진사(進士)가 되었다. 윤선도의 예송논쟁(禮訟論爭)으로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후에 성균관권지학유(成均館權知學諭)가 되었지만, 또한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다. 1678년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추증(追贈)되었다. 부인은 전주(全州) 류씨(柳氏)로 감사(監司) 류항(柳恒)의 딸이다.

아버지인 윤선도의 예송논쟁으로 벼슬을 하지 못했던 사정과 벼슬길로 천거하려 했던 다양한 의논이 수록되어 있다. <附錄>에서는 윤인미의 성품과 평소의 행실, 학식, 재량(才量)과 관련된 여타의 문헌에서 보이는 기록을 모아둔 것이다. 윤선도가 경원(慶源)에 유배갈 때 윤인미가 함께 갔는데, 돌아온 후 껌질을 벗긴 쌀을 알지 못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는 사연도 함께 실려 있다.

권15에 윤인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湖南丙子倡義錄>은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윤인미가 의병을 일으킨 사실과 그때의 정황을 기록한 것이며, <陸進士家傳>은 윤인미의 의학(醫學)과 상마(相馬)의 재능에 대한 기록이다. <謹次湖陰集韻奉寄尹別坐講舊求和>는 정지문(鄭之間), <送尹子壽歸海南>은 신혼(申混)의 작품이다.

■ 進士公

윤의미(尹義美, 1612~1636)의 자는 자방(子方)으로, 윤선도의 둘째 아들이다. 1630년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25살의 짧은 삶을 살다 갔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재예(才藝)가 뛰어났으며, 천성이 온량(溫良)하고 효우(孝友)가 남달랐다. 20살이 되기 전에 문학(文學)에 매진하여 윤선도의 총애를 받았다. 권15에 윤의미에 대한 간략한 기록만이 보인다.

■ 典簿公

윤이석(尹爾錫, 1626~1694)의 자는 거경(巨卿)으로, 천성이 자효(慈孝)하고 공근(恭謹)하였으며, 가법(家法)을 지키며 옛 가르침을 잃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문예(文藝)에 뛰어났으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사람들이 아쉬워했다. 숙종(肅宗) 무오(戊午, 1678)년 음사(蔭仕)로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제수되었고 그 해 가을 이산현감(尼山縣監)에 제수되었지만, 경신(庚申, 1680)년 가을 고향으로 돌아왔다. 기사(己巳, 1689)년 봄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제수되었고 한성부판윤(漢城府判官)·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 등을 지냈다. 부인은 청송(靑松) 심씨(沈氏)로, 심광사(沈光泗)의 딸이다.

윤이석에 대한 기록은 권15에 실려 있다. <通訓大夫行宗親府典簿公墓志文>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가 쓴 묘지명이며, <挽詞>는 이보만(李保晩)이 쓴 것이다. 이어 이형징(李衡徵), 윤직미(尹直美)가 쓴 <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學生尹公爾久墓碣>은 이관징(李觀徵)이 쓴 묘갈명으로서, 윤이석의 성품과 학식 및 일생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挽詞>는 윤선도가 지은 것이다.

■ 支庵公

윤이후(尹爾厚, 1636~1699)의 자는 재경(載卿)이고, 호는 지암(支庵)으로, 윤의미(尹義美)의 둘째 아들이다. 1679년 생원(生員)이 되었고 1689년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병조좌랑(兵曹佐郎)·정랑(正郎)·선혜청랑(宣惠廳郎)·사간원정원(司諫院

正言)을 역임했으며, 1691년 함평현감(咸平縣監)을 1년 여 지낸 뒤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해에 병조랑(兵曹郎)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해남(海南)의 죽도(竹島)에 몇 칸 집을 마련했다.

부인은 전의(全義) 이씨(李氏)로 참봉(參奉) 이사량(李四亮)의 딸이다. 다섯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창서(昌緒)·흥서(興緒)·종서(宗緒)·두서(斗緒)·광서(光緒)이고 딸은 안동(安東) 김남식(金南弼)에게 시집갔다.

윤이후에 대한 기록은 권15 후반부에 보인다. <墓誌>는 아들인 윤두서(尹斗緒)가 아버지의 행적을 서술한 것이며, 이어 윤이후의 행적 등이 간략하게 실려 있다. 부록(附錄)에는 허목(許穆)이 윤이후에게 보낸 편지글 <答尹生爾厚載卿>·<又> 두 편과 <老人今年八十有七, 既耄荒, 又病聾, 無人事, 鳥獸不驚. 山居閑暇, 作四言詩長作.> 한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유명현(柳命賢)의 편지글인 <與尹持平書>가 실려 있다.

윤이후가 만년에 종노(終老)의 계획으로 해남의 죽도에 거주했는데, 이때 여러 문인들과 수창한 작품을 엮은 것이 「죽도시첩(竹島詩帖)」이다. <次竹島詩並序>와 <竹島記並詩>는 정유악(鄭維岳)이 썼으며, 석도안(釋道安), 석풍간(釋豐干), 석채현(釋採巖), 윤협(尹俠), 윤관(尹寬), 권중경(權重經), 이현기(李玄紀), 김봉구(金奉龜), 이기만(李著晚), 윤직미(尹直美), 정주윤(鄭周胤), 정규상(鄭奎祥), 이윤문(李允文), 이의만(李宜晚), 이이만(李頤晚), 이정양(李廷揚), 원봉서(元鳳瑞), 양헌직(楊憲稷), 이백기(李伯起) 등이 차운한 26수의 작품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유명현(柳命賢)의 <答尹正言寄詩>·<送毛冠>·<又和前韻>, 정재(靜齋)란 호를 지닌 사람의 <秋來舶信久闊, 不敢樛月之思, 率爾命筆落句, 偶如此, 而非敢實有意於故人之曠信. 幸勿以辭害意, 只付一菴>란 작품이 차례로 실려 있다.

■ 恭齋公

권16에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1668~1715)와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윤두서는 어릴 때부터 문예(文藝)에 뛰어 났으며, 특히 필법(筆法)에 고명(高明)하여 5~6세에 큰 글씨와 초서(草書)를 쓰니 보는 사람마다 입을 모아 칭찬했다고 한다. 15세에 결혼 했다. 아버지 윤이석(尹爾錫)이 이미 늙어 병이 많았는데 좌우에서 백방(百方)으로 봉양했으며 종족(宗族)이나 노복(奴僕)을 대할 때에도 위엄으로 하지 않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대했다. 정축(丁丑, 1697)년에 친아버지인 윤이후(尹爾厚)를 뵈러 서울에 있다가 남쪽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 때 숙인(淑人) 심씨(沈氏)께서 향장(鄉庄)의 묵은 빛을 받아오라 명했다. 윤두서는 남으로 내려와 채권(債券)에 수록된 것을 보니 그 액수가 수천 냥이나 되었다. 그러나 빛을 진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여 갚을 수 없음을 공홀히 여겨 채권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 일을 들은 사람은 모두 어진분이라고 일시에 칭송했으며, 명망이 더욱 떨쳐지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당화(黨禍)로 세상에 마음이 더욱 없어져 전분(典墳)과 경적(經籍)에 전심하여 모두 널리 꿰뚫고 그 극치를 추구했다. 이 밖에도 백가(百家)와 중기(衆技)에까지 모두 그 지취(志趣)를 연구했으며, 상위(象緯)·점술(占術)·병법(兵法)에도 능통했다.

만년에는 해남 백련동(白蓮洞)으로 이주했는데, 을미년(1715) 겨울에 감기를 앓다가 마침내 그해 11월 26일 별세했다. 전비(前妣)는 전주(全州) 이씨(李氏)로 승지(承旨)를 지냈던 이동규(李同揆)의 딸이다. 계비(繼妣)는 전주(全州) 이씨(李氏)로 도사(都事)를 지냈던 이형징(李衡徵)의 딸이다. 모두 7남2녀의 자식을 두었다.

<第四弟恭齋君墓碣銘>은 현과(玄坡) 윤흥서(尹興緒)가 쓴 묘갈명이며, <行狀>은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가 쓴 것으로, 윤두서의 생애와 관련된 행적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유고(遺稿)에는 윤두서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南樓諭父老>는 월과(月課)에 대신 지어준 것으로, 개성(開城)의 남루(南樓)에서 부노(父老)를 불러 놓고 밝게 깨우쳐준 일을 서술했다. <簡李楊州借金剛山圖>와 <又次其韻促之>는 이양주(李楊州)에게 금강산 그림을 빌려달라고 간청한 내용

이다. 이 유고에는 윤두서의 시 작품 4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윤이후의 죽도시에 차운한 <伏次家君竹島詩並序>란 작품도 있어 주목된다.

이어 이서(李澈), 홍계회(洪季會), 한덕사(韓德師)의 <挽詞>가 실려 있고 이서(李澈), 권세정(權世鼎), 이사량(李師亮), 허의(許宜), 이홍모(李弘模), 허욱(許煜), 이익(李瀾), 이원휴(李元休), 최익한(崔翊漢), 이익희(李益熙), 권태연(權台彦), 윤흥서(尹興緒), 윤덕부(尹德溥), 윤동미(尹東美)의 제문(祭文)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부록(附錄)에는 조구명(趙龜命)이 윤두서의 부채에 그린 그림에 대한 평을 기록한 <題柳世範家藏尹孝彦扇譜帖>이란 작품과 진재(眞齋) 김극양(金克讓)이 윤두서의 그림 화첩에 발문한 <跋恭齋畫帖>이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玄坡公

권17은 현파(玄坡) 윤흥서(尹興緒, 1662~1733) 관련 기록이다. 윤흥서의 자는 효선(孝先)이며, 호는 현파(玄坡)이다. 숙종대왕(肅宗大王) 기사년(1689) 경의(經義)로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 지평공(持平公) 또한 급제(及第)로 출신(出身)하여 부자가 동년(同年) 합격이므로 영예가 고을에 진동했다. 신묘년(1711)에 광주(廣州) 남쪽의 판교촌(板橋村)에서 살았다. 당시 조정에 있는 여러 명경(名卿)들이 모두 그를 천거했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신년(1728)에는 가포에서 난리가 있었는데, 적의 우두머리는 명문(名門) 출신으로 평소에 그와 얼굴을 알았던 사람은 화에 걸리지 않은 자가 없었으나, 윤흥서는 혼인(婚姻)한 집안이면서도 초연히 홀로 면할 수 있었다. 기유년(1729) 봄에는 판교(板橋)에서 결사(結社)하여 고을의 소년들을 모아서 학문을 가르치고 기예를 익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이택사(麗澤社)이다.

<行狀>은 1808년 3월 상순에 족손(族孫)인 윤종하(尹鍾河)가 찬술(撰述)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약용(丁若鏞)의 시문집에 보이는 <玄坡尹進士行狀>과 그 내용이 거의 같다. <玄坡先生遺集序>는 5세손(五世孫)인

윤의호(尹誼浩)의 부탁으로 심영석(沈英錫)이 쓴 것이다.

이후 윤흥서의 작품을 수록했다. <祭玉洞李先生文>은 옥동(玉洞) 이서(李澍), <祭外舅全羅道觀察使李公雲徵文>은 장인인 이운징(李雲徵)의 제문(祭文)이다. <伯氏容齋公墓碣銘>은 용재(容齋) 윤창서(尹昌緒), <第三弟進士君墓誌>는 윤종서(尹宗緒), <第四弟恭齋君墓碣銘>은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 <定齋沈君士常墓誌>는 정재(定齋) 심득경(沈得經) 관련 묘지명이다.

유고(遺稿)에는 40수의 시작품이 실려 있다. <無極吟和人>은 이(理)·기(氣)·도(道)·성(性)·생지성(生之性)·심(心)·정(情)·경(敬)·오성(五性) 등을 주제로 지은 작품이다. <述懷八首, 效杜工部八哀詩.>는 1723년 경기도 관교에 거주하면서 두보(杜甫)의 팔애시(八哀詩)를 본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징(李澄)·이중연(李仲淵)·윤창서(尹昌緒)·윤두서(尹斗緒)·심득경(沈得經)·김계동(金季鍊)·이맹원(李孟遠)·박원숙(朴元叔) 여덟 사람을 애도한 시다. <山廬>나 <月夜>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한적한 삶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駱西公

낙서(駱西) 윤덕희(尹德熙, 1668~1715)의 자는 경백(敬伯)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윤두서가 옥동(玉洞) 이서(李澍)선생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게 했는데, 성리학 외에도 천하의 모든 사물의 이치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얻는 것이 모두 속유(俗儒)들로서는 따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또한 영자팔법(永字八法)을 얻어 세속이 고루함을 초탈하여 우뚝한 명필(名筆)의 반열에 들었다. 회화에서 재능을 보여 자득(自得)하여 전신(傳神)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젊은 시절부터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사람을 사귀에 당파(黨派)나 귀척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사람됨만 보고 취사(取捨)했다.

계사년(1713) 봄 식구들을 거느리고 남쪽 고향으로 내려와 학업을 닦았다. 고향의 풍토가 자신에게 맞지 않고 선친의 묘소와 조상의 선산(先

山) 모두 경기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신해년(1731) 봄 다시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을묘년(1735) 나라에서 영희전(永禧殿)의 영정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화상을 다시 그리게 되었는데, 윤덕희의 그림솜씨가 우수하다고 임금에게 천거하는 사람이 있어서 입궐하라는 명을 받았다. 입궐하여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했다. 무신년(1748)년 또 숙종(肅宗)의 어용(御容)을 다시 그리게 되었는데, 임금은 윤덕희에게 조영우(趙榮祐)와 함께 입시(入侍)하라고 명했다. 윤덕희가 노혼(老昏)으로 사양하니, 임금이 곁에서 감독하고 지휘만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머물러 있기를 바랬다. 이에 윤덕희는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날마다 입참(入參)했다.

이 일로 동부도사(東部都事)를 제수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사옹원주부(司饗院主簿)·감찰금부도사(監察禁府都事)·사평(司評) 등 여러 직책을 제수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생계를 모색하기 위해 임신년(1752) 가을 서울의 집을 장차(長子)에게 맡기고 모든 권솔을 거느리고 해남으로 내려왔다.

계미년(1763) 전조(銓曹)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배(拜)해졌고 병술년(1766)에 또 추은(推恩)되어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었으며, 곧 이어 가의(嘉義)로 승진되었다.

초배(初配)는 청송심씨(靑松沈氏)로 진사(進士) 심체원(沈體元)의 딸로, 두 아들을 두었다. 후배(後配)는 광주안씨(廣州安氏)로 진사(進士) 안서의(安瑞儀)의 딸로, 3남 3녀를 두었다.

권18에 윤덕희 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行狀>은 손자인 윤규상(尹奎常)이 지은 것으로, 윤덕희의 생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고(遺稿)는 윤덕희의 문집인 『수발집(搜勃集)』2권에서 뽑아 놓은 것으로, 15수의 시작품과 2편의 서(序)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附錄)에는 수락자(隨樂子), 이병연(李秉淵), 이익희(李益熙)가 윤덕희에게 준 시작품 3편이 실려 있다.

■ 靑臯公

윤용(尹榕, 1708~1740)의 자는 군열(君悅)이고 호는 청고(靑臯)다. 1735(영조 11) 진사시에 합격했다. 할아버지 윤두서와 아버지 윤덕희로부터 그림에 대한 재능을 이어받고 문장에도 뛰어났으나 33세로 요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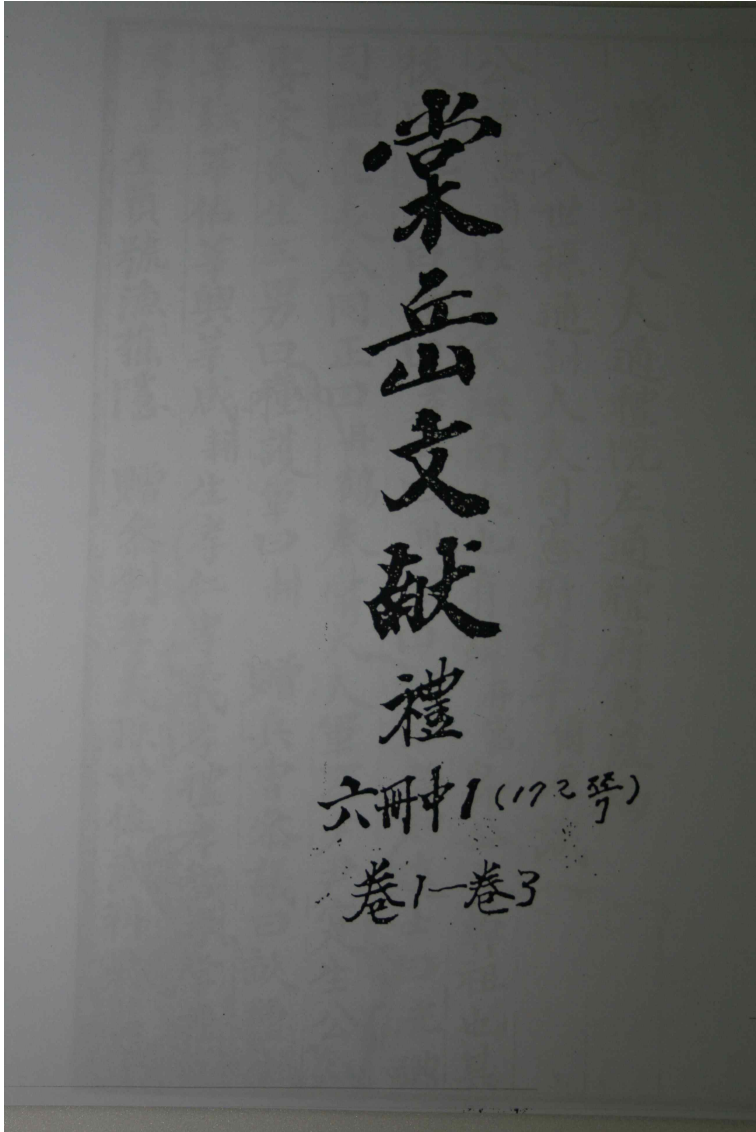
산수화는 가법(家法)으로 정착된 남종화풍(南宗畫風)을 따랐고 풍속화에 서는 할아버지의 회화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채애도(採艾圖)>(간송미술관 소장) 등을 남겼다. 이밖에 유작으로 <수하필서도(樹下筆書圖)>(海南宗家 소장) · <홍각춘망도(紅閣春望圖)>(간송미술관 소장) · <연강우색도(煙江雨色圖)>(개인소장) 등이 있다. 또한 시집 2권이 있었다고 한다.

권18 말미에 윤용에 관한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윤종(尹宗) · 윤탁(尹悅)의 제문(祭文)이 실려 있고 허경(許縈)의 만사(挽詞)가 실려 있는데, 상세한 주석을 통해 윤용의 행적을 소개했다.

마지막 부분에 실린 「銘髓錄」은 권15의 말미에 기록된 「인고제서(引攷諸書)」의 책명 속에도 나온 것으로, 윤용 이하의 인물들, 즉 윤지범(尹持範), 윤지눌(尹持訥) 등에 대한 기록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오늘날 청고 윤용의 시집은 그 존재를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작품들이 동시(東詩, 과체시)의 형태로 필사 시집들에 일부 유전되고 있다. 그는 당시 그러한 시를 잘 짓기로 매우 이름이 나 있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악문헌(棠岳文獻)』에는 19인에 대하여 각각의 인물별로 여러 기록이 실려 있다. 이 책은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한문학연구실에서 입력, 표점 작업을 마쳐 머지않아 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울러 번역도 추진되고 있어서 몇 년 내에 번역 출판되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해남윤씨 문중의 주요 문인들 고산 윤선도나 공재 윤선도 등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관련 기록을 쉽게 접하게 될 것이다.



海南尹氏文獻卷之一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府君墓碣

八世孫通訓大夫司憲府持平 爾厚 識

公諱惠甫姓尹氏海南人也有諱存富昂公之鼻祖也其

後曰光夾曰衡曰孝正曰川楫曰桓曰祿和進士曰光弼

司醞直長合同正曰丹鶴秦常大夫軍器少尹寔生公

娶宋氏生三男曰種護軍曰耕 贈兵曹參議曰畝種

莘耘莘佑莘興莘咸耕生孝仁孝義孝禮孝智孝常孝元

孝貞 生員號漁樵隱 贈叅判孝義孫世佐武科縣監

定武科郡守宅武科縣監孝貞于衢文科應教 贈判書
 衍生負行文科牧使復文科監司左通禮淑人封贈以此
 也衢子弼中文科正郎 贈判書毅中 文科左參贊行孫
 光啓文科正郎毅中子唯幾 府使唯幾 文科監司為弼中
 後唯漢子善言善道文科參議 贈判書諡忠憲為唯幾
 後子仁美文科 贈獻納義美進士為善言後禮美復玄
 孫恆美武科縣監仁美子爾錫典簿義美子爾厚文科正
 言為禮美 後內外孫過千不可盡載只舉名顯以光祖先
 既代遠親盡香火久絕已廿歲忠憲公立條約置祭田為
 每歲季秋率宗人一祭之規當初墓表乃玄孫欽中與諸

孫共立而年久字剝今又易新仍屬爾厚記實不敢辭略

述如右

贈淑人宋氏卽贈左通禮尹公諱息甫之配也于孫衆

盛冠冕煥赫海南尹氏之大始此左通禮積德之厚於此

可見亦豈非淑人懿德之盛有以致之也嗚呼躋哉墓標

季久字畫剝缺諸孫又改新石而于孫畧載左通禮碣陰

此不復述云 肅廟癸酉

漁樵隱公

公諱孝貞字希參号漁樵隱成均生員 贈嘉善戶叅

公嘗受業於崔錦南好學而積善尹氏之業基於此

古傳族譜云公力學務稼隱居教誨

洪判書宇遠撰忠憲公謚狀云公有隱德不仕

許文正公穆撰忠憲公神道碑曰公自戊申以來隱居不

出

初居康津之德井洞後遷海南眉巖下城今縣後

有友愛堂詩曰妻子似衣裳兄弟如手足衣裳綻可補手

足斷何續友愛堂康津坡山舊第也公兄弟七八公最季而友愛相樂有此堂号

公与慕齋金公安國相善

尹進士友衡之往海南付寄尹同年 孝貞希參暨其

于尹佐郎嚮亨仲

慕齋集

鴻鴈年之托遠音天涯懷息苦難禁海山春色應先到

須折南枝寄一吟

柳眉巖希春撰崔錦南溥行狀云海南為縣僻在遐隅舊
無文獻禮儀亦荒陋先生受室是邑累年將處以正論革
陋俗又得尹孝貞林遇利二秀才及我先人倒廩傾困而
誨之三人以所學授徒一鄉翕然遂為文憲之邦

弘治十四年辛酉式年司馬生員李守貞擢一等第四人

幼學尹孝貞

父振威將軍耕

恭僖壬寅二月初六日終葬海南白蓮洞德蔭山下

治縣

東十里甲坐之原

忠憲公戎于書曰高祖勤於稼嗇取於奴僕最薄故曾祖
昆季勃興一門鼎盛又曰海濱拙齋兩族曾祖不能體高
祖家規故于孫陵替天報之昭、此可知也高曾祖以節
儉而興後代之事隨俗華美漸不如先世之風云

家藏古帖有手墨書筆勢飛騰曰汝兄弟一歲同登蓮榻

兵使暨四鄰守令來會慶席榮孝無比

橘亭兄弟聯中司馬時貽書中途

公勤稼頗饒值歲荐饑以糴米之不入民繫盈歛迫歲而

不得出公愍之以家粟輸倉俾得解歸如是者三鄉之人

傳為美談至今稱三開獄門之家

配海南鄭氏考貴英瑛一作祖文明曾祖在田高祖龍五世

祖元琪

忠憲公以公樹立基業當為始祖別建廟於白蓮墓下

仲冬一祭朔望參謁

生員羅斗冬輯海南鄭氏譜略曰鄭氏譜無傳焉而畧
 有流來所記者當麗末國初有曰元基一作琪又作麒
 常患邑居蕭條人民無統欲正風俗自願為邑吏云其
 子曰龍一作見龍又其子曰在田世為戶長初海南縣
 合于珍島為海珍郡至我太宗十二年壬辰徙其邑
 治而不自備財力物造官舍用其勞免其役其後十三年
 丁巳又上言減除咸吉道入居鄉吏十餘口入役于本

削職九 爵之三 壻最顯 曰朴應 福文科 大司憲 曰柳裕	科封萬 善府院 君以乙 巳禍首 與其弟 牧使九 齡同坐	億齡文 科觀察 使号石 川能文 章有氣 繁曰百 齡示登	事伯仲 俱無後 季孤子 孫今為 本縣鄉 族林秀 之孫曰	明宗朝 丁卯公 裕生負 公裕有 三子曰 彥洪彥 提同占	有一子 曰和一 女曰尹 孝貞生 員世稱 漁樵隱 者也自 和	子曰自 和一女 曰尹孝 貞生員 世稱漁 樵隱也 也自和	溥也再 登文科 歷副應 教司諫 為戊午 名賢貴 瑛有一	季婿曰 李裕生 負武科 奉事貴 瑛之壻 寧錦南 崔先生	中武科 訓練叅 軍曰明 有二子 女曰貴 瑛曰在 田為庚 辰	文鄭戶 長其子 曰文明 有二子 女曰貴 瑛曰在 田為庚 辰	稱鄭戶 長其子 曰文明 有二子 女曰貴 瑛曰在 田為庚 辰	給文籍 實正統 五年也 海之南 人嘉其 劍始之 功至今	武特命 甬子孫 免役云 云而世 宗二十 二年庚 申成	吏入役 官家又 以陳告 受賞奴 婢定屬 官奴婢 其功大	海南戶 長鄭在 田專辦 官客舍 又成除 咸吉道 入居鄉	後又具 由呈上 言喉司 入婢以 此自本 縣許令 永免子 孫	二口分 定官家 及校奴 婢以此 傳旨有 曰惟爾 全羅道	凋敝難 堪越三 年己未 又納陳 告受賞 京司奴 婢六十	縣其年 以海珍 郡分馬 海南珍 島兩邑 而官奴 婢甚甚
---	---	---	---	---	--	---	---	---	--	--	--	---	--	---	---	--	---	---	---

發科	行	素	忱	祖	驚	暨	錦	期	昌	孝	徐	遺	女	極	文	應	武	
號	文	文	縣	朝	岩	及	南	壽	之	傑	宗	逸	封	成	科	福	科	
東	正	文	監	經	曰	金	無	之	玄	晉	泰	左	尚	參	之	府	使	
岩	郎	科	以	惺	希	雲	男	孫	孫	陽	文	議	陽	贊	于	曰	崔	
文	曰	同	孝	名	春	其	有	令	奎	君	科	政	尉	孝	錦	東	慶	
科	毅	知	旌	儒	文	婿	三	瑞	孝	領	領	文	又	宗	溪	說	昌	
應	中	令	我	我	科	也	女	聖	傑	之	議	純	東	君	君	文	昌	
教	文	尹	王	五	副	柳	柳	龜	之	政	政	公	亮	封	說	科	文	
李	左	科	父	代	提	桂	城	判	于	柳	外	之	錦	平	之	觀	科	
浩	叅	監	也	祖	學	隣	隱	書	曰	赫	落	柳	內	尉	孫	察	歷	
號	贊	司	曰	王	文	有	桂	李	赫	然	于	尚	外	東	世	使	清	
南	其	號	空	子	節	二	鄰	裕	判	曰	運	入	孫	亮	模	曰	顯	
溪	外	杏	父	曰	公	子	及	執	外	珩	文	相	亮	之	文	東	孤	
凡	孫	堂	也	高	號	曰	我	義	商	皆	統	者	長	科	望	孤	竹	
弟	有	禱	高	王	眉	成	五	齊	有	以	制	三	子	參	文	竹	以	
行	文	科	正	父	巖	春	代	華	佐	武	使	人	彌	判	科	以	文	
之	子	校	郎	有	蔚	文	祖	皆	郎	科	珩	政	尚	世	正	文	藝	
孫	副	曰	又	孫	蔚	科	監	登	察	顯	外	世	宣	之	曰	藝	名	
曰	提	中	曾	曰	然	吏	察	羅	羅	子	曾	孫	祖	亮	亮	朴	朴	
光	學	文	曰	士	宣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公
啓	李	曰	孫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	宣